



## 배전사업관련 연구용역 이달중 발주

해외 전문기관 컨소시엄에 발주, 최소 1년 장기과제로 추진될 듯

**한전은** 빠르면 8월중 배전부문 사업부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객관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해외 전문기관을 주관사로 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특정 분야에 자문을 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가 노사정위 권고대로 한전의 배전분할 중단 발표 이후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몇 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에 따라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금명간 용역기관 선정 등 배전부문 사업과 관련한 한전의 구조개편 시행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구조조정실 한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는 배전부문을 따로 떼어내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판매 송전부문과 통합해 내부경쟁과 경영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이 폭넓게 연구될 것이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배전분할 보고서는 경쟁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가치가 참고자료에 국한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력업계는 이번 용역에서는 전력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한전의 투명 자율 책임경영 강화방안,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전반의 합리적 발전방안 등 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계의 합리적인 체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배전부분과 관련한 한전 구조개편 용역은 최소 1년 이상 장기과제로 발주될 전망이다.